

##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

성경: 행 20:24, 32, 엡 3:2, 4:29, 고후 13:14, 12:9, 갈 6:18, 계 22:21

- I.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가 얻고 누리는, 그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다.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사람들의 누림을 위해 그들 안으로 하나님을 분배하는 은혜의 청지기 직분이다 — 요 1:17, 행 20:24, 엡 3:2.
- A.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졌다 — 담후 1:9, 딤후 2:11.
- B.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서 육체가 되셔서 사람이 받아들이고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심으로써, 하나님은 사람이 접촉할 수 있고, 만질 수 있고, 받아들일 수 있고, 체험할 수 있고, 들어갈 수 있고, 누릴 수 있는 분이 되셨다 — 요 1:1, 14, 16-17.
- C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(아들 안에 체현되시고 생명 주시는 영으로 실재화되신) 삼일 하나님의 넘치는 공급이며,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함으로 이 공급을 누린다 — 갈 6:18.
- D. 날마다 놀라운 신성한 전달이 일어나야 한다. 하나님은 은혜의 영을 넘치게 공급하고 계시고, 우리는 계속적으로 은혜의 영을 받고 분배하고 있어야 한다 — 요 1:16, 히 10:29하, 갈 3:2-5, 엡 3:2, 4:29.
- E. 매일 우리가 은혜를 받아들여 은혜를 흘러 나가게 할 수 있는 길은 영으로 돌이키고, 영을 사용하며, 주님을 보좌에 앉으시게 하는 것이다 — 영한동번 찬송가 770장(한국복음서원 찬송가 557장).
1. 은혜의 보좌는 우리의 영 안에 있다. 우리는 넘치는 은혜를 우리의 속 부분들 안으로 받아들여, 은혜가 우리 속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도록 함으로써, 생명 안에서 사탄과 죄와 죽음을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— 히 4:16, 롬 5:17, 21, 비교 계 4:2.
  2.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, 우리는 주님을 보좌에 앉으시게 하고, 우리 속에서 그분께 머리의 권위와 왕권과 지배 권위를 드러야 한다 — 골 1:18하, 계 2:4-5, 엡 6:24.
  3. 하나님의 보좌는 흐르는 은혜의 근원이다.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보좌에 앉으시게 하지 못하고 그분을 보좌에서 끌어내릴 때, 은혜의 흐름은 중단된다 — 계 22:1.
  4. 우리가 우리 속에서 주 예수님을 보좌에 앉으시게 한다면, 생명수의 강들이신 그 영께서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우리를 공급하실 것이다.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고, 은혜를 누리며,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공급할 것이다 — 요 7:37-39상, 비교 행 6:4.
- F. 우리가 은혜를 분배할 수 있도록 매일 은혜를 받는 길은 피와 말씀과 그 영과 교회를 통해서이다.
1. 구속하는 피, 언약의 피, 하나님 자신의 피는 죄 많고 부패한 사람들을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누림 안으로 이끈다 — 행 20:28, 마 26:28, 레 16:11-16, 히 10:19-20, 요일 1:7, 9.
  2.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먹을 수 있고, 이렇게 먹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된다 — 행 20:32, 렘 15:16, 요 6:63, 엡 6:17-18.
  3.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하나님의 넘치는 공급이신 은혜의 영은 그리스도의 동반자들인 우리에게 부여된 큰 기쁨의 기름이다 — 히 1:9, 10:29하, 스후 12:10상.
  4. 하나님의 교회는 내리는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신선하고 상쾌하게 하는 은혜를 체험하는데, 이러한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 하늘들에서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적시고 변화시킨다 — 시 133:3, 애 3:22-23, 고후 13:14, 행 11:23.
- II. 바울은 그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엄숙히 증언하며 하나님을 사람들 안으로 공급했다. 바울은 자신의 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 준다 — 행 20:24, 32.

- A. 은혜는 사람 안에 거하시고, 사람 안에 태어나시고, 사람과 하나 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방문하신 것이다 — 눅 1:28, 30, 마 1:18, 딤후 4:22.
- B.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반드시 은혜의 생활, 곧 은혜를 체험하는 생활이어야 한다.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, 곧 은혜를 분배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다 — 고후 12:9, 딤후 4:22, 엡 3:2.
  - 1. 우리의 말은 반드시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전달해야 한다 — 눅 4:22, 엡 4:29, 사 50:4-5.
  - 2. 교회생활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때, 교회는 건축될 것이고, 우리가 받는 은혜는 눈에 보이게 될 것이다 — 행 4:33, 11:23.
- C. 그리스도의 몸의 실질적인 생활과 건축은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 누림에서 나온다 — 고전 1:9, 고후 13:14.
  - 1.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은 십자가의 일을 통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— 고전 1:13상, 18, 23-24, 2:2.
  - 2.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은 생명의 성장을 가져와, 우리를 교회 건축을 위한 귀한 재료들로 산출한다 — 고전 3:6, 9-14.
  - 3.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은 생명의 성장에 의해 우리의 은사들을 발전시킨다 — 고전 12:1-11.
- D.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고난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그들의 모든 것을 충족하게 하는 은혜로 누리며, 새 언약의 사역은 계시에 고난이 더해짐으로 산출된다 — 고후 12:7, 1:3-4, 8-10.
  - 1. 은혜이신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사역자들에게 장막으로 드리워지는 능력이 되시고, 약함 가운데 있는 그들을 가리시어, 그들을 떠받치고 부축하고 유지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그들의 거처가 되신다 — 고후 12:9하.
  - 2. 우리는 우리의 움직임과 보호를 위해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,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— 겔 1:6하, 9상, 출 19:4, 사 40:28-31, 고후 4:7, 1:12, 12:9, 고전 15:10, 시 17:8, 57:1, 63:7, 91:4.
- E.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들어가서 누리고 체험하고 동참하고 소유할 수 있는 좋은 땅이시다 — 고후 1:12, 12:9, 13:14, 골 1:12, 2:6-7상, 비교 출 3:8.
- F. 은혜는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에게 전달되시는 신성한 삼일성,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세 방면으로 체현되신 삼일 하나님의 나타남이다 — 고후 13:14, 민 6:22-27, 시 36:8-9.
  - 1.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주님 자신이고(요 1:17, 고전 15:10),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이며(요일 4:8, 16), 그 영의 교통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,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그 영 자신이다 — 고후 13:14.
  - 2.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서 주님의 은혜가 첫째로 언급되었는데, 그것은 고린도후서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한 책이기 때문이다 — 고후 1:12, 4:15, 6:1, 8:1, 9, 9:8, 14, 12:9.
  - 3.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를 순환시키고 전달하시는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생활 안에서 공급이 되신다.
    - a. 교회생활 전체가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달려 있다.
    - b.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계시된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신성한 삼일성의 흐름은 우리의 영적 맥박이다.
- G.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은 삼일 하나님의 시(詩)인 교회이며, 이러한 교회는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신성한 구상과 함께 그분의 은혜의 뛰어난 풍성을 전시한다 — 엡 1:6-8, 2:10, 7.

III. 신약 시대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안으로 분배된 주 예수님의 은혜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데,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은 이 새 예루살렘 안에서 모든 믿는 이들이 영원토록 누리는 은혜가 되실 것이다 — 계 22:21.